

<하나님, 나의 하나님>

###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집은 바다 저어쪽으로 툇 떨어진 거문도. 나의 나이는 여든 다섯 (85). 나는 아직 한번도 육지엘 가 본 일이 없어요. 나에게는 영감도 없고 다른 식구도 없지요. 단 하나 뇌성마비에 빠져 전신을 움직이지 못하는 예순일곱살(67)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44년 전, 스물네살 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뇌성마비 상태에 빠진 이래로 저렇게 누워서 살고 있습니다. 밥도 제 손으로 먹을 수가 없으니 하루 세 때 일일이 에미 손으로 먹여야 합니다. 저렇게 기나긴 세월을 누워서 지내니 약도 소화가 안 되어서 일일이 갈아서 떠 넣어 주어야 합니다. 제 뜻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 텔레비전조차 제 뜻대로 볼 수 없어요. 텔레비전이라도 볼 수 있게 해 주려고 궁리 궁리하던 끝에, 머리맡에 거울을 걸어서 거울 속으로 볼 수 있게 해 주기까지는 한참이 걸렸지요. 처음에 그렇게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우리 모자 모두가 정말 이렇게 살아서 무얼 하나 했습니다.

그러나 이웃에 사는 분의 전도를 받고 교회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내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아들이 가엽기만 하고 어떻게 하면 아들이 덜 불편하게 지낼 수 있을까만 연구하는 것이 내가 살아야 할 전부가 되었지요. 하나님은 전신불수의 아들에게 전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들은 어미가 믿는 예수님을 순하게 받아들였지요. 내가 눈이 침침하여 성경을 읽어 줄 수가 없어서 생각해 낸 것이, 성경책을 아들의 눈 높이로 공중에 달아매고 아들의 오른손에 긴 작대기를 달아매어 성경 한 장씩을 넘겨가며 읽게 만든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성경을 한 장 넘기려면 얼마나 오래도록 안간힘을 써 가며 죽을힘을 다하는지 옆에서 보기에 안스럽기 그 지없지만 그렇게나마 성경을 읽게 된 것만이 기적이라는 생각에 우리 모자는 그저 감사하울 뿐입니다.

아들은 늘 노래를 부르듯 하고 또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소원이 하나 있지요. 어머니가 육지에 올라가셔서 종합집찰 한 번 받아 보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44년을 저리 고생을 하셨는데 그 몸인들 성한 데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육지 구경은커녕 이웃집에 마실도 못 가시는 어머니입니다. 나를 혼자 두고 어디를 가시지 못하시지요." 그렇게 아들은 에미를 두고 한없이 마음 아파합니다.

하지만 아들의 소원보다도 내 소원이 더 기막힙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한 내 아들을 내 앞에서 데려가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만일 아들을 두고 나 먼저 떠난다면 그때부터 내 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들을 돌아보사 내 앞에서 아들을 불러가 주시기만 기도하고 있지요. 우리 모자의 이러한 처지를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셨는지, 금년에는 정말이지 믿기지 않을 만큼 기쁜 일들이 계속 우리를 찾아왔지 뵈니까.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가정생활 위원회에서 글씨 나 같은 것한테 <장한 어머니 상>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녹음된 듣는 성경과 찬송, 그리고 카세트 라디오까지 보내 주신 겁니다. 이제는 아들이 그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머리맡에 걸어준 성경 책장을 펼치기 위해서 막대기를 쓰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우리 모자가 살고 있는 거문도를 보살펴 주시고 감사주시는 주님은 정말 정말 사랑이 너무도 많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거문도의 늙은 에미 이춘덕-

-주부편지 2000년 8월 호 중에서-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2002년 교회생활'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b>갈보리 교회</b>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익명성 -명예
제 4권 14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2년 4월 7일
☎520-9464/021-292-1639.☒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 협력하여 선을 이룸



미국의 남동부 알라바마 주에 가면 기념탑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 비문에는 이러한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화를 갈아먹었던 벌레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저들은 우리에게 번영의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또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고 하는 신념을 일깨워 주었다."

본래 알라바마 주는 목화를 많이 재배하기로 소문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갑자기 수많은 벌레들이 나타나서 목화를 갈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문에 많은 일꾼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손을 써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디다.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머금고 수십년 동안 일구어왔던 목화밭을 완전히 뒤집어엎었습니다. 그 대신 땅콩을 심었습니다. 그들은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 지금과 같이 세계적인 땅콩산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무렵에 화학 섬유가 개발되어 사람들이 질 좋고 값싼 인조옷감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값비싼 목화로 만든 무명 옷감은 팔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주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지만, 알라바마 주는 이미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늘 탄탄대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 월간 생명의 삶 -

**엄마가 딸에게**  
 자리양보에 인색하지 말아라  
 네 다리가 좀 피곤한 것이 네 양심이  
 불편한 것 보다 낫다  
 아직 젊음이 있을 때 이 일을 행해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때론 모르는 길로 다녀라  
 늘 아는길만 다니는 것은 안전하기는 해도  
 지루하다. 모르는 길을 헤메다 보면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운다

# 주 일 예 배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갈 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50장	다 갈 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8(시 19)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474장	다 갈 이
기 도 Prayer		양경배 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24:13-35(신 140)	인 도 자
어린이 시간 Sunday School		
성가대 찬양 Couple's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엠마오서 만난 부활의 주"	
찬 송 Hymn	486장 (마지막절은 일어서서)	다 갈 이
* 헌 금 기 도 Offertory Prayer	(기도후 착석)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갈 이
위탁의 말씀 Encouragement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4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Tea Time	주일안내
7일	양경배	김영길	최재학.정덕수	최재학.정희자
14일	윤형권	김순자	진병주.권용일	권용일.이지영
21일	임혜자	김종건	김교섭.김영길	박병민.이기중
28일	정덕수	노은숙	김종건.박기원	박정자.정희자

'2002년 교회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엡 5:21)  
<실천사항>표현하는 사랑만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답살뎌는 애정표현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하  
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12시 | 수요일예배 7:30 pm | 금요일새벽기도: 6:00 | 아동.학생.청년부: 주일12시

## 교 회 소 식

1. 당회: 월요일 7:30pm
2. 구역예배: 한달에 한번 갖는 정기 구역예배입니다. 금요일(12일) 저녁 7:30 pm  
\*1구역(이지영): 서동완 성도. 김진근 성도. 김현수 성도  
2구역(박정자): 사카시다 집사. 김경구 집사  
3구역(김경숙): 정관영 집사  
4구역(정희자): 김반석 집사. 유광진 집사
3. 오늘 어린이들은 야외에서 예배드립니다  
\*장소: Tahaki Reserve  
\*나무 도시락, 칠성 사이다, 삶은계란, 김밥... 비로인해 취소라도 되면  
소사아저씨가 잡은 뱀때문이라는 전설이....  
"모든 것 버리고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많이 알고, 많이 갖고, 많이 즐기는데도 늘 이렇게 허전한 것은  
그때의 살가움과 순수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때가 그리웁습니다"
4. 결식자 점심식사 봉사: 제1 여성교회  
\*토요일(13일). 오전 10시
5. 제2남선교회: tea time을 하면서 모임을 갖습니다
6. 등록교우 '기초성경공부'(예고): 등록교우 의무과정입니다  
\*일시: 4월 18일(목)부터 4회 목요일 \*대상: 작년 10월 이후 등록교우
7. 도서실 운영을 위한 도서 기증을 기다립니다  
\*운영 관리: 권용일. 박병민. 윤형권 집사  
\*신앙, 교양서적. 동화책. 테잎(성가. 가곡등). VTR테잎등의 기증을 바랍니다.
8. 새미가 여동생을 보았습니다  
\*신경화 집사, 윤형권 집사. 순산을 축하하며 산모와 아기의 건강위해 기도드립니다.
9. 목련처럼 화사하던 4월의 신부! 결혼기념일을 맞습니다  
\*이광희 집사. 이규임 집사(15일). 행~~~복하세요  
\*임성광 목사, 원은숙 사모님도 4월5일 식목일이 결혼기념일이였습니다.  
이국에서 처음 맞는 날, 축하드립니다.
10. 교우소식  
\*개업: 이규임 집사. T-Shirt. 모자 Shop "Hot 'n' Spice". 34 Broad Way. Papakura
11. 등록하심을 함께 기뻐합니다.  
\*마경춘 집사. 이은영 ☎ 520-0924 ☒ 10/201 Great South Rd. Greenlane  
\*김현수, 김준순 성도. 경희. 경우 ☎ 416-2247 ☒ 82 Lagoon Way. West Harbour



세 개의 못을 빼드렸다  
그러나 아직 못은 많이 남아있었다  
"내가 이렇게 못을 많이 박았나?"